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7월 1일(월)
담당	조현수 (페이지	총 5매(붙임자료 포함)
제목	31년만의 변화 맞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향한 변화!
집구석과 수용시설에서의 탈출이자 포기할 수 없는 행진!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앞으로(前) 나아가자(動)!

“잠수교를 지나 세상을 향하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 집중 투쟁

-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일(월) 오후1시~8시. 서울지방조달청→잠수교→서울역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부] “31년만의 변화(Revolution) 시작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 선포 집회

-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일(월) 오후1시~2시. 서울지방조달청

[2부] 전동(前動-Forward) 행진 #잠수교를_지나다

-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일(월) 오후2시~7시. 서울지방조달청→잠수교→이촌역→용산역→삼각지역→서울역광장

[3부] 세상을 향(向-toward)하여 #손을_내밀다

-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일(월) 오후7시~8시. 서울역광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아학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애인등록제도’와 함께 ‘장애등급제’는 31년간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수급유무와 수급 양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이 사실상 전무했던 당시에는 큰 전환이자 계기였으며, 이제 31년만의 또 다른 역사적 전환을 7월 1일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4.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31년 만에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 것처럼 2019년 7월 1일은 31년 동안 공고하게 굳어져있던 ‘장애등급제’라는 정책 기준이자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폐지 또는 개편되는 것을 넘어 서서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향하는 변화는 **권리를 향한 변화여야 합니다.**

6. 이러한 측면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리라는 **희망보다도 불안과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와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권리로서 보장하며 ‘낙인’과 ‘차별’의 굴레를 철폐해야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2년여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은 **겉데기만 둔갑한 채 여전히 ‘장애등급제’의 차별적 의미와 효과가 남아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7. 결국 핵심은 ‘장애등급제’라는 제도 하나를 개편하거나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분리’와 ‘배제’, ‘낙인’의 의미였던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대전환의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만 이 장애인과 가족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결국 ‘교육·노동·소득·주거·사회서비스·문화’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영역 전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거나 또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7월 1일부터 ‘돌봄’영역에서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만 하고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주간활동지원’이라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

비스를 삭감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9. 2020년에 ‘이동’ 영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이 되어서야 ‘소득·고용’ 영역에서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하는 ‘종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며 장애인과 가족의 권리보장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7월부터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만 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0.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 확대의 방향 속에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도입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른바 ‘슈퍼예산’이라고 이야기되는 2020년 500조원의 정부예산 중에서 적어도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맞는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보다 더 적은 인상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11. 전장연은 지난 6월 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일인 7월 1일,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살아왔던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리고자 전국에서 150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으로 행진하고자 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31년만의 변화(Revolution)의 시작 - #장애등급제_진짜_폐지하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 선포 집회

일시/장소 - 7월 1일(월) 오후1시~2시 / 서울지방조달청 앞

사회: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0. 민중의례

1. 여는 발언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연대 발언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민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3. 문화 공연 박준

4. 투쟁 발언 김종옥(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변경택(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행진(서울지방조달청-잠수교-이촌역-삼각지역-서울역)

[3부] 세상을 향(向작-toward)하여 - #손을_내밀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선언하는 집회

일시/장소 - 7월 1일(월) 오후7시~8시 / 서울역 광장

사회: 권달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1. 결의 발언 박경석(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2. 연대 발언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3. 문화 공연 하자센터

4. 상징의식

○ 31년만의 변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는 날.
잠수교를 지나 세상을 향(向)하여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31년 만의 변화. 장애인에게는 권리를 향한 변화(Change)입니다.

권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과 집구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 권리입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한(Forward) 행진입니다.

지금까지 쳐 박혀 살아온 집구석과 시설에서의 탈출 행진(Exodus)입니다.
포기 할 수 없는 행진입니다.

세상을 향(Toward)한 손을 내밉니다. 손을 잡아주십시오.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관계의 혁명(Revolution)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Toward)해 갑시다.

마침내 지금까지 차별에 기반하여 맺어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갑시다.